

신문용지 생산 대불산단 美기업 '보워터 코리아' 철수 검토

노조탈퇴 직원들 “회사 살리자”

“투쟁 일변도 노조가 경영난 불렀다”

신문용지 생산 공장인 영암 보워터 코리아의 노조에서 탈퇴한 일부 직원들이 노조가 경영위기를 자초했다고 비난하며 상여금 반납 등 회사 정상화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노조 탈퇴자 50명과 사무직 등 115명이 참여한 ‘보워터 코리아 참뜻 모임’(대표 김태현·설비팀)은 8일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지난 1996년 대불산 단에 입주해 최초 상업생산을 시작한 이후 지역경제의 중심기업으로 자리

잡고 영업 흑자를 기록했지만, 투쟁 일변도의 과정적인 노조(금속노동조합산별지회) 때문에 경영위기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용지 시장 악화와 노조의 무모한 투쟁으로 연매출 1800억원에 최고 400여억원의 흑자회사에서 대규모 영업적자 회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 모임의 한 관계자는 “올해 217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250억~26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다음 달 초 사업 철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미국 보워터 코리아 본사에서 실사가 예정돼 있다”면서 “최대 위기를 맞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상여금 반납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뜻 모임은 영암군에 설립 신청한 기업노조가 사업장 혼란을 일으킨다며 반려돼 어려움이 있지만 상여금 400% 반납 등 회사 살리기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

이들은 9일 낮 12시 회사 정문에서 회사 살리기 움직이기 대회 및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이상희기자 lsh@

‘김영랑 시집’ 일본어판도 나온다

유족 측 베트남어·영문판 이어 추진

강진출신 영랑 김윤식(1903~1950) 선생의 시집이 베트남어판과 영문판에 이어 일본어판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8일 강진군에 따르면 영랑 김윤식 선생의 대표작 ‘모라이 피끼까지는’을 비롯해 ‘돌담에 속삭이는 헛말’, ‘오매 단풍 들겠네’ 등 80여 편의 작품이 외국에 처음 소개된 것은 지난 2008년 베트남 하노이 대 한국어과에서 한국문화를 강의하는 해당 호안(Le Dang Hoan) 교수는 주목같은 시를 묶은 ‘김영랑 시집’이 최근 베트남어판과 영문판이 나온 데 이어 일본어판 출간

을 서두르고 있다.

김영랑 시인 유족 측은 지난 9월 국내의 권위 있는 일본 번역가에게 영랑 시 일역(日譯)을 의뢰, 일본어판 ‘김영랑 시집’ 출판을 추진하고 있다.

영랑 시집이 외국에 처음 소개된 것은 지난 2008년 베트남 하노이 대 한국어과에서 한국문화를 강의하는 해당 호안(Le Dang Hoan) 교수는 대신문화재단의 번역 지원

기금을 받아 ‘모라이 피끼까지는’을 비롯해 ‘끌없는 강물이 흐르네’, ‘돌담에 속삭이는 헛말’ 등 모두 71편의 시를 모아 베트남어판(베트남 문화출판사)으로 선보였다.

또 같은 해 미국 미원 아시아(Mervin Asia) 출판사가 김영랑의 시 전집(86편)을 수록한 ‘Until Peonies Bloom’을 출간하기도 했다.

문화평론가 임환모(전남대 국문과) 교수는 “근래 영랑의 작품이 전 세계적 주목을 받는 것은 그가 보여준 지사다운 삶의 자세와 문학적 성과도 무관치 않다”고 평가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담양군 공직비리 감시체계 성공할까

부서장이 직접 통제… 직원간섭 업무위축 우려

담양군이 부서장이 부하직원의 비리를 직접 감시하는 통제 규정을 마련해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담양군에 따르면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정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내부통제 강화’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담양군은 비록 해경기 괴주와 남양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포항과 안동시 등 6곳이 시범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담양군은 군수를 위원장으로, 실·과장 당연직 위원 6명과 외부 전문가 6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내부통제 위원회와 6명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실·과·단·소장 등 각 부서장은 통제할 업무는 물론 평가방법, 인센티브 등을 결정하고 분기마다 평가결과

를 감사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은 공직비리를 자체적으로 예방·적발하려는 취지이지만 동료 직원들간 간섭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부서장의 비리를 걸러내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준에 해 온 모니터링 등 자체 통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위원회 구성과 통제업무 결정 등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상무랜드공인증개사

금산공인증개사

대인동삼일부동산

현대공인증개사

토지 금 매매

▶ 서구 마륵동, 생신동지, 3002㎡(908평), 매매가 15억원대출, 농협7억 김대중컨센션 인근, 교회 식당 창고 공장 용도다양

광산구 토지 매매

▶ 광산구 양동, 계획 관리지역, 28,845㎡(8,725평), 토지 전체면적 중 15,818㎡(4,784평) 전용되어 있음. 건축물 637.46㎡(192.83평), 현재 쌓은 매장, 적합한 용도 : 기도원 수련원 공장 창고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 가능, 매매가 협의 후 결정▶ 송학동, 계획관리지역, 2차선도로에 접, 2,1914㎡(6,629평) 매매가 22억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광산구 우신동, 대지 321㎡(97평), 건물 지하 1층 지상 6층 1326㎡(401평) 임대 내용 : 보증금 2억 원 5백만원 월 740만원(부기기치세 별도), 이파트 2,300세대인근, 대출 3억원, 매매가 12억원

■ 본 광고물은 전속 계약 된 물건임 ■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GG경매컨설팅(주)

• 위치: 법원입찰장 건너편
잔금부족시 최저금리 대출일선

【공인중개사 : 강영희 ☎ (062)364-8700 H.P. 010-4608-3700】

▶ 아파트

지역 소재지 아파트명 면적㎡/평 갑경가 최저가

광산구 수원동 혼자아이빌 161/49 3~9평 2억4천6백

수원동 혼자아이빌 215/65 4~9평4천6백 3~9평4천6백

월동 일신 115/65 4~9평4천6백 6천8백

월동 경령 115/25 1~6평 7천4백

월동 혼천주공 109/33 1~6평 7천4백

서구 서동 한일베리아 116/56 2~5평 1억1천4백

월동 부동파크 105/32 1~6평 8천4백

월동 삼익 146/45 1~6평 1억2천4백

주동동 금광파크리움 115/35 1~6평 1억5천4백

남구 삼성동 삼성아파트 105/32 1~6평4천6백 8천1백

전주시 신암동 삼성아파트 109/33 1~6평4천6백 8천1백

전주시 신암동 삼성아파트 1